

- 주요 뉴스: IMF, 세계 경제는 강력한 경기회복 기반과 심각한 경기둔화 위험이 공존
 - 미국 민주당, 조부유충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증세안 추진
 - 미국 소매업협회, 공급 차질 불구하고 연말 매출은 전년비 최대 10.5% 증가 예상
 - S&P, 중국 부동산 업체의 1/3은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5%],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차익매물 출회 등이 원인 중소형주 주가 하락이 심화
유로 Stoxx600 지수는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과 원자재 관련주 약세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가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차별화 가능성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회복 둔화 우려 등으로 2주래 최저 수준
독일은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6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73.3원, +2.2원) 0.2% 상승, 한국 CDS 보합

		10/27일	10/26일	전일대비			10/27일	10/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51.7	4,574.8	-0.51%	국채 금리 10y	미국	1.54%	1.61%	-7bp
	유럽	474.04	475.74	-0.36%		독일	-0.18%	-0.12%	-6bp
	중국	3,562.3	3,597.6	-0.98%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098	29,106	-0.03%		중국	45bp	46bp	-1bp
	한국	3,025.5	3,049.1	-0.77%	위험 지표	EMBI+	-	373	-
환율	달러지수	93.87	93.95	-0.09%		VIX	16.98	15.98	6.26%
	유로화	1.1603	1.1596	0.06%		WTI유	82.66	84.65	-2.35%
	엔화	113.83	114.16	0.29%	원자재	구리	438.6	448.6	-2.23%
	위안화	6.3924	6.3833	-0.14%		금	1,796.8	1,792.9	0.22%
	원화	1,170.0	1,167.6	-0.2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IMF, 세계 경제는 강력한 경기회복 기반과 심각한 경기둔화 위험이 공존

- 주요국의 비통상적 경기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대 등은 향후 세계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평가. 다만 새로운 코로나 19 변이 출현, 인플레이션 및 공급 차질 등은 경기둔화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지적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기업 촉진 등이 전세계 실질 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또한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민주당,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증세안 추진

- 이번 법안은 바이든 정부 주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같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수천억달러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전망. 다만 당 내에서 온건파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

■ 미국 소매업협회, 공급 차질 불구하고 연말 매출은 전년비 최대 10.5% 증가 예상

- 협회에 따르면, 11~12월 매출은 8434~859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8.5~10.5% 늘어날 것으로 추정. 개별 업체들은 공급 차질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상품 주문을 일찍 시작했기에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

■ 미국 9월 내구재 수주, 전월비 0.4% 줄어 5개월 만에 첫 감소. 공급 차질 등이 영향

- 같은 달 내구재 수주 규모는 2613억달러. 내구재 소비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공급 병목 등이 원활한 생산과 운송을 저해. 한편 기업의 투자지표인 항공부문 제외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비 1.4% 증가

■ ECB, 9월 유로존 기업 대출은 전년동월비 2.1% 증가

- 이번 결과는 전월(1.5%) 대비 늘어 2월 이후 처음으로 성장이 가속화. ECB 조사에 따르면, 대출 기준은 엄격하지만 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할 전망. 한편 가계 대출은 전년동월비 4.1% 늘어 전월(4.2%) 대비 소폭 둔화

■ 영국 재무장관,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를 약속

- 수낙 장관은 세제인하와 정부지출 확대 등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가 인플레이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 예산국은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제시하여 이전(4.0%) 대비 상향

■ S&P, 중국 부동산 업체의 1/3은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

- 정부의 규제강화와 경기심리 부진 등에 따른 최악의 경제 여건 발생을 가정하면 해당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 매튜 초우 애널리스트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일반적인 방법보다 대부신탁(trust loan) 등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다고 지적
- 한편 부동산 업체들은 당국에 달러화 채권의 상환 기한 연장과 채무 조정 등을 요청. 최근 당국은 업체들에 상환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동시에 대외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요구

■ 중국 9월 공업부문 이익, 전년동월비 16.3% 증가. 전월(10.1%) 대비 개선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178.9%) 이후 하락하던 전월비 증가율이 상승으로 전환. 석탄, 석유, 가스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높은 이익을 기록했기 때문

■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자산매입은 종료

- 견고한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 양호한 백신 접종률 등을 이유로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 2022년 인플레이션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에 금리인상이 당초 전망보다 3개월 빨라질 수 있다고 제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무역수지(억달러): -963, 8월(-894), 예상치(-)
- 미국 9월 도매재고(전월비): 1.1%, 8월(1.2%), 예상치(-)
- 독일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0.9, 10월(0.4), 예상치(-0.5)

■ 주요 경제 이벤트(10/28 현지시각 기준)

- ECB 및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3/4분기 성장률, 9월 잠정주택매매
- 미국 10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독일 10월 소비자물가(속보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커다란 도전 - Financial Times

(Rising energy prices create dilemma for Biden administration)

-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행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 정부는 OPEC에 원유공급 확대를 요청하는 등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 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난항에 직면
- 또한 공화당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을 부각시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책 동력 약화를 유도. 2022년 유가의 안정 여부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이 가능할 전망

■ 인플레이션 논란, 일시적일 가능성에 무게 - 블룸버그

(Three Reasons Inflation Isn't Here to Stay)

-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 현상과 장기간 지속 가능성으로 양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고려 시 일시적일 현상에 무게.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연준은 주요 책무 중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 시 행동에 나설 전망
-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연준이 자신들의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 이는 일자리 회복이 미흡해도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
- 셋째, 금융시장 관점으로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편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승 시나리오는 비현실적. 물가연동채권(TIPS)도 향후 5년간 물가상승률이 3%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

■ 미국 증시, 장기적 측면에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 Financial Times

(If the flows go on forever)

■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광범위한 수단 등으로 시장의 판단에 혼란 - WSJ

(The Risks and Rewards of Playing Chicken With China)

■ 미국 민주당의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 시도, 단순명료한 접근이 요구 - 블룸버그

(To Tax Billionaires, Democrats Should Keep It Simpl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